

◇...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Indian Bee Journal'지 1995년 가을 판에 인도의 양봉산업 현황을 살펴볼수 있는 리포트 번역문을 연재로 소개합니다. 고유명사 어구가 워낙 생소하여 이해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바라면서 인도의 양봉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도는 올 5월 25일~29일까지 "전인도의 양봉발전을 위한 워크샵 및 벌꿀축제(APEXI'98)"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인접국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제4회 아시아양봉대회 및 양봉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도 주변국들은 요즘 한참 양봉산업 중흥을 위한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인도축제의 경우는 양봉 관련 책자·영상미디어·사진·미술품·우표·포장용기 디자인·밀원식물자료 전시회와 벌꿀조리 음식 시식회, 아동미술대회·벌꿀 건강달리기·양봉인 사이클경주·밀랍 제품콘테스트·벌꿀 퀴즈쇼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외국 양봉인들에게(우리 협회에도 안내장 도착) 한번 다녀가지 않겠냐는 손질을 하고 있다...편집자 주◇

인도의 양봉산업 현황①

물 생산국이다. 또한, 낙농업, 양계업, 양어업, 양잠업과 양봉업 등의 농업에 기초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

전술한 4개 산업에 비해, 꿀벌 사양군수와 벌꿀 생산은 보잘 것 없었던 관계로 양봉업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다음 단락에서 인도 양봉업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현황을 설명하고 양봉업에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2. 과거

선사시대부터 벌꿀과 꿀벌은 인간에게 알려져 왔지만 기타 몇몇 농촌 산업과는 달리 봉업은 인도에서는 전통적인 산업분야가 아니다. 연기를 피워 꿀벌을 쫓아 낸 후에 벌집을 꺼내 봉군에서 벌꿀을 채취하는 것은 태고적 이후부터 사용해 온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였다. 1880년 이후 유럽의 개량종 Apis mellifera를 인도로 수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시도와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남단에 있는 카냐쿠마리(Kanyakumari) 지역에 사는 인도산 동양종벌(Apis cerana)에 적합한 소형 벌통을 뉴턴 목사가 설계하여 벌집에 인도산 벌꿀을 양육하는데 성공한 것은 약 1910년 경이었다.

마하트마간디(Mahatma Gandhi)는 독립투쟁당시부터 양봉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양봉업을 그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에 포함시켰다. 와드하(Wardha)에 있는 그의 은둔처에서 몇 명의 자유투사(Freedom Fighter)들에게 양봉기술을 가르쳤다. 전국에서 온 이 자유투사들은 자신들의 각 지방에서 돌아가 양봉업을 시작하였다. 가나타카(Karnataka)의 쿠르그(Coorg) 지역 출신인 완미 샴바와난다(Wwami Shambhavananda), Y.M.C.A.회원, 인도 남단의 해안지역 출신인 마탄담(Martandam)과

스펜서 하크박사(Dr. Spencer Hatch), 남부 반도 출신인 칼라풀(Shri S.K. Kallapur)과 센데(Shri S.G. Shende), 히말라야 중부 출신인 무투(Shri R.N. Muttoo), 오리싸(Orissa) 출신인 데비(Smt. Rama Devi)와 만모한 차우다리(Shri Manmohan Chaudhary), 잠무(Jammu)와 카스미르(Kashmir) 출신인 라즈단(Shri Rajdan)은 인도에서 근대적인 양봉업을 확립하는데 개척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인도지방에서는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은 중소자본가(small pockets)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독립 후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전통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전인도 직물촌산업회의(All India Khadi and Village Industries Board)를 설립하였다. 또한 양봉업 개발이라는 임무도 이 위원회에 주어졌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1956년에 공무부 산하의 법정기관인 직물촌산업위원회(Khadi and Village Industries Commission; KVIC)로 재설립되었다. 지방 촌락의 산업청, 양봉업자 협동조합, 등록된 공공기관 등의 균형잡힌 기관을 통해 인도의 전 지방에서 조정을 이루며 양봉업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중앙정부 산하의 직물촌산업위원회와 지방정부 산하의 직물촌산업회의(Khadi and Village Industries Boards)를 설립한 이후이었다. 지방 촌락의 산업청 외에 일부 지방(Jammu and Kashmir, Himachal Pradesh, Karnataka and Utta Pradesh 등)은 지방정부의 농무부 또는 공무부 산하에 양봉업 전담부서를 두었다.

2.1 양봉발전 태동기
자치 법정기구인 직물촌산업위원회(Khadi and Village Industries

Commission)는 1956년에 국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KVIC의 임무는 방직, 방직, 섬유, 자기, 피혁 등의 Khadi와 촌락의 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 조직 및 실행하는 것이다. 양봉업은 KVIC 산하의 산업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KVIC는 양봉 이사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이사회는 봄베이의 본부에 충분한 직원을 확충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에서 잠재력이 있는 모든 촌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에 기술진과 보충 직원망을 갖추고 있었다.

양봉업 확장 프로그램 기관도 KVIC 산하에 있었다.

2.1.1 직물촌산업위원회(KVICK)

KVIC는 약 200명으로 구성된 기술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진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봄베이 본부의 위원장 보조원 2명, 개발임원들, 감독원 I, 감독원 II, 및 감독원 III 또는 지방정부 소속 현장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봉이사회는 양봉업자 협동조합, 양봉기관 및 양봉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10가지의 다른 원조 유형을 고안했다. 이 중 일부 원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양봉업 지국 설치 ②임시 양봉장이 딸린 양성소 ③봉군 이동 ④채밀작업장 건축 ⑤양봉관련 장비 구입 ⑥양봉교육. 매년마다 원조 유형에 따라 각 지방에 대한 개발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승인된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KVIC는 지방정부의 양봉관련 위원회, 기관 및 협동조합에 재정·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2.1.2 지방정부의 직물촌산업회의(KVIB)

KVIC가 인도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라면, 지방정부의 KVIB는 각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이다. 지방정부의 KVIB는 각 지방의 승인을 받아 원조유형에 따라 재정적, 기술적 개발 프로그램 실행 원조를 받는다. 각 지방정부의 KVIB는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감시하는 양잠(봉)업 확장담당진을 자체 기관 내에 확충하고 있다. 지방정부 KVIB는 직접적으로 또는 협동조합 또는 등록기관을 통한 간접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한때 인도 전역에 500개의 양봉 지국에서 일하는 계약직 양봉종사원이 1천명이나 되었다.

2.1.3 직접원조를 받는 기관

지방정부의 KVIB가 설립되기 전에 있었던 등록기관 또는 협동조합은 KVIC가 정한 직접원조 기관 중에 하나였다. 원조 유형에 따라 KVIC의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직접원조를 받는 기관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Kerala Sarvodaya Sangh, Punjab Khadi Gramodyog Sangh, Bihar Khadi Gramodyog Sangh

2.1.4 전인도 양봉협회(AIBKA)

인도양봉협회는 1937년 우타라데스(Uttar Pradesh)의 라마가르(Ramgarh)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무투(Shri R.N. Muttoo)는 우타라데스에 양봉업을 개발하는데 전 인생을 바쳤다. 설립되고 몇년 동안 인도양봉협회는 국가 양봉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 근대 양봉업을 알렸고, 꿀벌을 죽이거나 벌집을 파손시키지 않고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원심분리식 채밀기 이용방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시켰다. KVIC의 직접원조를 받는 기관 중 하나인 인도양봉협회는 우타라데스에서 양봉업 개발 프로그램을 맡았다. 지난 50년 동안 인도양봉협회는 "Indian Bee Journal"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잡지를 발간하는 것 외에 협회는 양봉장치 표준화, 양봉관련 서적, 도표 및 기타 시청각 보조기구와 문헌을 공급하는 등의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양봉 연구사업

양봉업과 같이 인도에서의 벌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양봉 연구의 성장 및 발전은 4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벌 연구분야에 있어 가치있는 공헌은 다음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음호 계속>

97년 신개발품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

저수량조절 자동사양기 실용신안원 974693외 2건 의장등록원 974537

◎재래식 광식사양기와 격리판에 부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경사각도에 따라 저수량을 조절 강·약군의 먹이를 균세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로얄제리·화분·중봉 생산농가에 고소득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본제품을 초봄·무밀기·가을월동군 번식에 활용하시면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품제작 및 금형수정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98. 1. 1부터 인상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4,000원

야생양봉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176-2. TEL (062)362-3400 · 3401

세계 품질 경쟁시대 국제특허출원품PCT/KR97/00255

봉봉원 자동먹이통

☎ (032) 561-5802

- 본 제품은 오랜 사용경험으로 하나의 큰 통에 물이나 먹이를 넣어주면 벌 수십군에서 수백군까지 각각의 군세에따라 먹이가 자동 조절되며
- 벌통을 열지않고 밖에서 벌먹이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 먹이통이 벌통 내부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이나 월동시는 때고 다시 설치하는 불편함 없이
- 관리자와 꿀벌에게 편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전보다 편하면서 생산성을 대폭 높일수 있는

“로얄제리 다수확 생산틀”

..... 전화주시면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3-8. 대표 장 봉 환